

# 아콜루씨아

## ΑΚΟΛΟΥΘΙΑ 따름

### *In This Issue*

계시록 7교회 4강  
두아디라 교회  
송병학 이사장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빌립보를 걸으며 2

기획:수도원탐방  
프루소스 수도원  
조동규 소장

### 그리스선교&성지연구소

O. +30 210 996 8186

M. +30 698 836 1900

E. holylandgreece@gmail.com

A. Voriou Ipirou 58, Glyfada, 165 62, Athens. Greece

W. holylandgreece.com



## 그리스 제1성지 아토스!!

아토스는 아기온 오로스(ΑΓΙΟΝ ΟΡΟΣ, 성산)입니다. .

데살로니키로부터 북동쪽 132Km 떨어진 곳에 '우라누블리'(하늘의 도시라는 뜻)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곳을 가리켜 아기온 오로스의 관문이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이곳에서 배를 타고 아기온 오로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1060년에 콘스탄티노스 모노마흐스 칙령에 의해서 아직까지 여성의 방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기온 오로스'는 또한 '아토스' 대지라 언급되는데 20개의 수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인, 러시아인 그리고 세르비아인의 수도원이 하나씩 있고 17개의 그리스 수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세기와 9세기 사이에 북쪽 야만인인 바바리안들이 이 지역을 파괴하여 오늘날 남은 유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은 모두 전승에 의해 전해진 전통 뿐입니다.

사본에 의하면 9세기경에 아기온 오로스에 수도승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10세기 중엽에 이로뵤따미아의 빠블로스(PAUL)와 아쏘니아의 아싸나시오스(ATHANASIOS)에 의해 첫 수도원이 세워졌고 수도승들이 그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때부터 위엄 있는 건물이 세워졌고 대 사원(교회)과 방문객을 위한 숙소 등이 점차적으로 아토스에 생겨났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많은 왕과 황제들이 수도원의 후원자가 되었고 그곳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이오아니스 황제인 치미스끼스는 972년에 첫 번째로 아기온 오로스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기록했는데 이 법률은 트라고스라 불리며 성역인 까리에스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0세기와 12세기 사이가 아토스의 황금시대로 간주되는데 이 시대에는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시리아, 조지아 등지에서 모여든 수도승이 20,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건축된 수도원들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16세기 건립된 20개의 수도원은 오늘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토스의 수도원들은 그리스 독립전쟁(1821년 시작) 기간동안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1830년에 안전상의 이유로 떠나갔던 많은 수도승들이 아토스에 돌아와 터키 군에 의해 손상된 수도원들을 복구했습니다.

1926년 9월 10일부터 아기온 오로스는 그리스에서 자치구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도승들은 하루를 8시간씩 세 차례로 나눠 첫 기간에는 기도하고 두 번째 기간에는 노동을 수행하고 마지막 세 번째 기간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수도원에서 진행되는 기도는 거의 밤에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보물들과 기록들이 아기온 오로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비잔틴과 정교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고대와 근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아기온 오로스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유물은 경전인데 이것은 법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손으로 기록된 책들은 비잔틴 시대 이후 계속 수도원에 보관됐으며 그중 일부는 6세기에서 9세기 사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이들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의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생활사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아기온 오로스는 그리스의 사상과 유물의 최상의 보고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아토스 산의 수도사들은 헤시카즘을 받아 들였습니다. 헤시케스트 운동의 창시자 인 그리고리에 따르면, 승려들은 덕이 있고 기도에만 전념한다면 다볼 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비추는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헤시케스트들은 소원의 소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소원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아토스 산에 들어가 위해서는 데살리니키 감독 순례자 사무실이나 할키디키의 우라누폴리 순례자 사무실에서 특별 입국, 거주 및 방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비용은 현재 정교회 신자의 경우 €25.00, 정교회를 제외한 기독교 신자나 비신자는 €35.00입니다.



# 계시록 7교회 4강 두아디라 교회

이사장 송병학 목사 (휘경교회)

두아디라는 로마시대에 버가모(페르가몬)와 사데(사르디아)를 잇는 거점도시였습니다. 다른 고대도시들은 방어를 위해 주로 언덕에 지어진 반면 두아디라는 평지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두아디라는 페르가몬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위성 군사도시로 시민들은 페르가몬(버가모)를 방어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강한 군사력이 있어 도시를 방어할 수 있어서 평지에 도시를 건설했으며, 안정된 군사력으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무기를 제작하고 군사 훈련에 여념이 없던 두아디라 백성들은 피곤하고 지치는 형편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계2: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말씀은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현재 모습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달픈 환경에서도 더욱 믿음에 열심을 내는 두아디라 성도들의 열정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고달픈 현실과 처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홀로 흘리는 눈물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나날이 성장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갖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확실한 소망과 남다른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듣는 책망은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계2:20)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시돈의 공주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거느리고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게 하면서, 행음과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종교행위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켰던 장본인입니다.



본문에서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로 하여금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계시록은 이세벨을 종말교회에 나타나 교회들을 미혹하는 음녀로 묘사합니다.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가 교회 내에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의 활동을 용납하였음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변질시키고 믿음을 외곡시켜 교회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철장(Iron Rod)은 강력한 왕권의 상징인 '강철 지팡이'로 철제 무기를 제조하던 두아디라가 페르가몬 왕에게 바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 철장은 두아디라 백성들에게 아주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자신들이 만든 강력한 무기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을 들은 두아디라 성도들은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성도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현실과 공감하시고 구체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두아디라는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행 16:14) 루디아는 사도바울의 유럽 최초의 선교지 빌립보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된 여인입니다.

자색 옷은 로마시대 왕족과 고위층 귀족들이 입었습니다. 이 자색 옷은 지중해 소라에서 채취한 자주색 물감으로 만든 초고가의 명품이었습니다. 자색 옷 한벌을 만들려면 수만 마리의 소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문 제작자만 만들 수 있는 명품 옷이었습니다.

루디아가 팔았던 자색 옷감은 아마도 왕제가 입는 최고급 옷감은 아니었을 겁니다. 소아시아에서는 마더나무 뿌리에서 채취한 붉은 색 진액에다가 파란색 물감을 섞어서 자주색 옷감을 만들었어서 카펫과 고급 옷감에 사용했습니다. 아마 루디아가 판매한 자주 옷감은 바로 이 옷감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바울의 전도를 받은 루디아는 성문 밖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고 곧바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사도바울의 선교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세례를 받은 강가에는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루디아 기념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은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은 현장을 순례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 기획:수도원탐방

## 성 프루소스 수도원

### Η Ιερά Μονή Προυσού

연구소장 조동규 목사

프루소스 수도원은 그리스 에브리타니아(Evrytania) 현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카레페니시(Karpenisi)에서 남쪽으로 31km, 아그리니오(Agrinio)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53km, 아그리니오 마을에서 2km 떨어져 있으며 이 지역의 영적 순례 중심지입니다. 프루소스 수도원은 헬리도나(Helidona), 칼리아쿠다(Kaliakouda) 산과 전나무로 둘러싸인 파나이톨리코스 산맥 사이의 가파른 암석 지대에 세워졌습니다. 산끝자락에 아름답게 위치하여 장엄한 전망을 자랑하는 이 수도원은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프루소스 수도원은 성모 마리아에게 헌정된 수도원으로 8월 23일 성모 승천기념일을 기념합니다. 1748년에 수도원은 스타브로피기아키로 임명되어 지역 교구가 아닌 중앙총 대주교청에 직접 소속된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 수도원의 역사

이 수도원은 아이콘(성화)으로 유명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 아이콘은 소아시아의 부르사에서 왔으며 전도자 누가의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성모 마리아 아이콘은 원래 소아시아의 프루사(Proussa)의 한 교회에 있었지만 인습 파괴주의자였던 비잔틴 황제 테오필로스(829-842)의 칙령에 의해 파괴될 것을 두려워하여 중부 그리스로 옮겨졌습니다. 정교회 교인들은 이 거룩한 아이콘을 보호하고 숨겼습니다. 그들은 이 성화를 지키기 위해 추방의 위협과 죽음의 위험도 불사했습니다.

829년에 전통에 따르면 누가 복음 사가의 손으로 그린 테오토코스(Theotokos) 성화는 프루사에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테오필로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 성화가 파괴될 것을 막고자 왕실 관리자의 한 경건한 아들은 황제의 명령에 불복하고 성화를 가지고 그리스 본토로 도망쳤습니다.

그 청년은 신성한 부름에 순종하여 함께 했던 종들을 풀어주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머물기로 한 종 한 명과 함께 성화를 가지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곳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동굴에 예배당을 세우고 성화를 보관했습니다. 그들은 디오니시오스와 디모데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최초의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성 프루소스 수도원)

### 1821년 혁명

1821년 봉기가 일어나기 몇 년 전, 키릴로스 카스타노필리스가 대수도원장으로 수도원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프렌들리 소사이어티의 회원으로 영적, 도덕적 쇠퇴를 바로잡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문자 학교"(1818-1828)를 조직하고 운영했습니다.

수도원은 해방 투쟁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그는 메솔롱기(Messolonghi) 포위 공격의 전체 관리와 전쟁 파괴 이후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내내 병원과 부상자를 위한 병원의 역할도 했습니다.

투쟁 기간 동안 카라이스카키스 장군은 수도원에 본부를 두었습니다. 카라이스카키스 장군은 그를 괴롭혔던 질병이 수도원에 머무는 동안 치유된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아이콘의 은색 덮개를 기증했습니다. 오늘날 수도원 금고에는 카라이스카키스의 무기가 있습니다.

1944년, 수도원의 상당 부분이 독일군에 의해 불태워졌습니다. 많은 유물, 도구, 원고 및 책이 파괴되었지만 지하실에 보관되었던 성모의 아이콘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남북 전쟁 후, 수도원의 재건은 수도원장 게르마노스에 의해 다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당시 수도원의 수도원장이었으며 나중에는 아토스 그리고리오스 산의 도치아리오에 있는 수도원의 수도원장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 명소

프루소스 수도원은 에브리타니아(Evrytania)에 보존된 몇 안 되는 수도원 중 하나입니다.



(수도원 전경)



(위에서 내려다 본 수도원)

카톨리콘은 돔이 있는 십자형 사원으로 서쪽의 바위 바닥에는 예배당 모양의 토굴이 있습니다. 현재 보존된 프레스코화는 1785년경에 제작되었습니다. 지하실 내부에는 13세기의 프레스코화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두 개의 층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15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도원 금고에는 유물, 아이콘, 신성한 그릇, 유물 및 책의 귀중한 사본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원에는 15세기와 16세기의 성상, 성스러운 의복, 은과 금 성배, 손으로 쓴 코덱스, 인쇄된 책, 카라이스카키스 장군의 검 등의 보물이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배당 내부는 1785년 에브리탄과 게르기오스의 작품인 프레스코화로 덮여 있으며 나무로 조각된 아이콘은 1810년 작품입니다.

카톨리콘 서쪽에는 성모 마리아의 성화(아이콘)가 보관되어 있는 지하실인 에브레소스의 동굴 예배당이 있습니다. 성화는 카라이스카키스 장군이 기증한 은색 가운으로 덮여 있습니다. 예배당은 13-14세기와 16세기 두 차례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수도원 바깥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카라이스카키스의 탑"인 두 개의 성이 있습니다. 1754년에 지어진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 그리스 소식

# 메리 크리스마스! Καλά Χριστούγεννα!

전문 연구위원 김민수 목사

## 그리스 최대 명절인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부활절과 함께 그리스의 최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 설날과 추석처럼 부활절과 성탄절 연휴가 있고 학교는 약 2주 간의 명절 방학을 가집니다.

11월이 되면 각 상점마다 성탄절을 위한 트리 장식품과 각종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이 쏟아집니다. 날이 갈수록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고 하는 말과 달리 그리스에서는 상점에서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도로와 거리 중앙에 성탄절을 축하하는 장식이 내걸리고, 집집마다 저마다의 성탄 장식을 뽐냅니다. 밤이 되면 온 동네가 반짝거립니다. 크리스마스 축제는 12월 6일부터 시작되며 1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 크리스마스 이브: 캐롤 부르기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거리에서 트라이앵글을 손에 들고 크리스마스 머리 장식을 하고 걸어가는 아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탄절 전날에 여러 상점들과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캐롤(칼란다)을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캐롤을 부르면 상점이나 집 주인이 작은 답례의 캔디나 용돈을 줍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캐롤은 기쁨, 부, 평화를 상징했으며 아이들은 부자들 집에서만 캐롤을 불렀습니다. 고대에 아이들은 양털(건강과 아름다움의 상징)과 여러 종류의 과일로 장식된 올리브나 월계수 가지를 들고 집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은 올리브 가지를 집으로 가져와 문에 걸었다고 합니다.



캐롤부르는 아이들

## 크리스마스 음식: 멜로마카로나 & 쿠라비에스

그리스에서는 성탄절에 먹는 전통 음식으로 멜로마카로나(Τα μελομακάρονα)와 쿠라비에스(Κουραμπιέδες)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달콤한 디저트 과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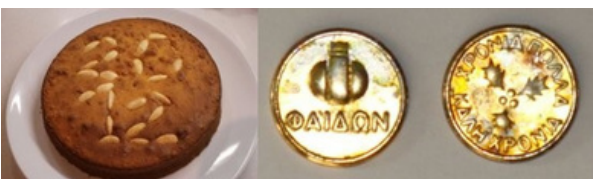
멜로마카로나는 꿀(멜로)을 넣은 달콤한 쿠키입니다. 쿠라비에스는 곁에 슈가파우더가 잔뜩 묻어있는 전통 과자입니다.



멜로마카로나



멜로마카로나



바실로피타



석류 터트리기

그리스에서는 1월 1일 0시에 모든 가족들이 현관 문 앞에서 석류를 발로 밟아 터뜨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석류를 터뜨리면서 새해의 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첫날 석류를 현관 밖에서 왼발로 터뜨리고 오른 발로 집 안에 들어오면 행복과 재물이 함께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로서 그들만의 전통을 지금도 아름답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는 유독 더 깨끗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 그 자체로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Καλή χρονιά! (꺄리 흐로냐!) \_그리스의 새해

한국 인사말이 “안녕하세요”라면 그리스의 인사말은 “꺄리메라!”입니다. ‘꺄리’는 ‘꺄다’ 라는 뜻이고 ‘메라’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새해 인사인 “꺄리 흐로냐!”로 ‘흐로냐’는 ‘해’라는 뜻입니다. 꺄리메라, 꺄리 흐로냐. 일 년 내내 지중해성의 온화하고 따뜻한 기온, 푸른 하늘을 가진 그리스인들이 할 수 있는 참 좋은 인사말입니다.

### 새해 음식: 행운의 바실로피타 빵

그리스에서는 새해가 되면 '바실로피타'라는 빵을 먹습니다. 바실로피타는 성 바실리우스의 빵 (pita)이라는 뜻입니다. 새해 첫 날이 축일인 성 바실리오스 이름을 따서 바실로피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전 황제가 기근과 빈곤에 고통받는 백성에게 엄청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때 성 바실리우스가 황제를 찾아가 거둔 세금을 다시 나눠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자 황제는 세금으로 거둔 돈과 보석을 성바실리우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돈의 주인을 찾아낼 방법이 없었던 바실리우스는 둥글고 커다란 빵 안에 돈과 보석을 넣어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빵이 바로 바실로피타입니다. 지금도 바실로피타 빵은 가족과 이웃에게 행운과 복을 기원하는 빵으로 그리스에서는 새해에 이 빵을 먹고 있습니다.



##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 빌립보를 걸으며 2

전문연구위원 김태연 목사

사도바울의 빌립보 전도는 시작부터 불편했습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압볼리(현재지명은 카발라)에 내려서 빌립보로 걸었습니다.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커다란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추방되어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할지 막막했을겁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문밖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두아리라에서 온 루디아를 말씀을 듣고 즉시 세례를 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루디아 역시 기도처를 찾은 경건한 신앙인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공통점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안식일에 강가에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루디아 세례터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거주하지 않는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기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푼 곳에 정교회에서 세례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은 성지순례 중에 이곳에서 미사를 드리며 세례를 베푹니다. 교회에서 성지순례 여정에 이곳에서 세례식을 한다면 영원히 기억에 남을 은혜로운 세례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처를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자가 따라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소리쳤습니다. 여러 날 계속해서 소리치자 바울은 점치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점치는 자의 정신이 온전해져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이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던 주인이 바울을 관리에게 고발합니다. 자신이 신뢰하던 점치는 귀신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음에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자 바울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 커다란 지진이 정말로 기적일까요?



옥타곤 교회

무리의 고발을 들은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심한 매질을 가합니다. 위에 있는 옥타곤 교회는 사도바울 일행이 매 맞은 장소에 세워진 팔각형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정 중앙에서 바울 일행이 이유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의 흔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 할 때 마다 느끼는 감동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로부터 출발했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길에는 언제나 핍박과 박해가 동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런 극심한 고통과 역울함 속에서도 바울 일행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 다. 아니 오히려 더욱 믿음이 굳건해져 갔습니 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 입니다.

머리를 쓰다듬기만 해도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죽을 때까지 쓰다듬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위대함은 강력한 능력이 아니라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음에서 나옵니다. 시작한 복음전도를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하는게 바울의 힘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매 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는 차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후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여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란 간수들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팩트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큰 지진이 정말 기적일까요? 실제로 과거의 빌립보는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도 큰 지진으로 옥터가 움직일 정도이니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커다란 재난입니다.

사실 당시 빌립보에서 일어난 지진은 모두에게 재앙이었고 오직 그 성에서 단 두명 바울과 실라에게만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오직 기도와 찬양을 하는 두 사람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빌립보를 걸으며 나는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인지 생각해봅니다.



# 그리스선교&성지연구소에 대한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그리스선교&성지연구소 이사회

### 이사장

- 송병학 목사 : (휘경교회)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2 나길 53

### 이사

- 김만준 목사 : (덕수교회) 서울 성북구 성북로 127
- 박봉근 목사 : (수산교회)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35-1
- 백상규 목사 : (신광교회) 서울 중구 동호로 27길 36
- 서은성 목사 : (상신교회)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14
- 박종숙 목사 : (전주중부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23-8
- 윤영호 목사 : (한마루교회)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22
- 정종락 목사 : (다산교회) 경기 남양주시 다산 지금로 16번길 88 (에일린의 뜰) 7102동 1706호
- 정진욱 목사 : (위대한교회) 경기 구리시 이문안로 115 송림빌딩
- 최원근 목사 : (경신교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86
- 홍세광 목사 : (성은교회) 구리시 갈매중앙로 184
- 독고현 목사 : (휘경교회)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2 나길 53



그리스 선교 & 성지 연구소

Holy Land Missionary Institute in Greece



# 우리의 후원으로 그리스에 복음이!

그리스선교&성지연구소 홈페이지  
[holylandgreece.com/donation](http://holylandgreece.com/donation)



신용카드(체크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후원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정기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계좌로 송금



예금주 : 그리스선교&성지연구소  
 하나은행 : 278-910028-00304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후원약정서

성명 \*

교회명

---



---

Email \*

---

주소

---

전화번호

담임목사명

---



---

후원방식

후원금액

AKOΛOYΘ1A | 5호 | 창간일 : 2021.12. 31 | 발행일 : 2022.12.31



그리스 선교 & 성지 연구소  
 Holy Land Missionary Institute in Greece

주소 : VORIOU IPIROU 58, GLYFADA, ATHENS, GREECE  
 전화 : +302109968186 모바일 : +306988361900  
 WWW.HOLYLANDGREECE.COM